



### 金鍾秀 先生の 靈前に

尹 日 重\*

나는 이제, 先生の 靈前に 哭하며 合掌再拜하면서 過去를 生覺합니다. 나의 現在까지의 生涯를 通하여 가장 長期間의 親友는 先生이었다.

또 가장 信賴하는 親舊로서 지내온 사람도 先生이었다.

뿐만 아니라, 同一系統의 專門學科 出身이며 同一系列의 職場에 있던 親舊로서도 가장 親近하게 지내왔다. 先生은 一九二五年에 日本大阪高工을 卒業하시고 即時歸國하시어 京城電氣會社에 入社하였다.

當時는 徹底한 日政時代라 韓國人의 高級社員은 絶無이었다.

그러나 先生은 刻苦勉勵四十五年間 勤續으로 常務理事까지의 職位를 受하였던 것이다.

實로 記錄의 勤續이요, 驚嘆할 地位로서 當時는 勿論이요 現在도 稀有의 成績이라고 確信하는 바이다.

다. 또 電氣學會 創立에 努力하시며 電氣學界에 巨한 記錄을 남기실 뿐 아니라 會員同志들과 더불어 美蘇共委에 對義하여 社會의으로도 巨한 功績을 남기시었다.

近年에는 中鮮電機, 漢城電機等 電氣工業界에도 關與하시며 電氣業界를 爲하여 多方面으로 活躍하시었다.

또 電氣學會 會合에는 無漏出參하시고 特히 學會 二十五年史起案에는 專擔하시다시피, 手苦를 아끼지 아니하시었다.

아- 先生은 이제, 斯界를 떠나시어, 永遠한 黃泉의 客으로 進出하시었다.

이제, 우리는 敬遠히 合掌拜禮, 先生の 靈魂을 踐別하는 바이다.

### 故 金鍾秀先生の 略歷

|           |                             |                              |
|-----------|-----------------------------|------------------------------|
| 1899年 5月  | 慶北 清道郡 雲門面에서 出生함            | (3代~6代)                      |
| 1917年 3年  | 慶北中學校卒業                     | 1953年 11月 京城電氣 技術顧問 被任       |
| 1925年 3月  | 大阪高工 電氣科 卒業                 | 1960年 11月 " 囑託被任             |
| 1925年 5月  | 京城電氣 株式會社 入社                | 1961年 5月 " 依願解任              |
| 1945年 10月 | 京城電氣 電氣部 次長 補任 및 電氣主任技術者 被任 | 1962年 6月 大韓電氣學會 會長(7代)就任     |
| 1947年 7月  | 京城電氣 技術部長 被任                | 1963年 1月 大韓電氣學會 會長離任         |
| 1948年 5月  | " 取締役 被選                    | 1963年 9月 中鮮電機株 代表理事 就任       |
| 1949年 3月  | " 常務取締役                     | 1966年 3月 電氣事業有功者 表彰 (大韓電氣協會) |
| 1950年 11月 | 依願解任                        | 1974年 9月 11日 逝去              |
| 1952年 7月  | 大韓電氣學會 副會長 就任               |                              |

謹

金鍾秀 前 會長

吊

大韓電氣學會

\* 名譽會員: 學術院終身會員 大韓電氣主任技術者協會 會長 (當學會終身理事)